

조선어학습사전의 올림말수선정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한 성 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외국어단어를 학습하는데 사전을 리용하는것이 좋습니다.》(《김정일전집》제1권 221페이지)

일반적으로 사전은 그 규모에 따라 소사전, 중사전, 대사전으로 갈라지며 각기 규모에 맞게 일정한 수의 단어들에 올라 있다.

모국어사용자용 중사전이 되자면 약 100 000개 정도의 올림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조선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학습사전인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중사전규모의 학습사전의 올림말수는 조선사람들을 위한 중사전의 올림말수와 같을 수 없다.

이로부터 올림말수를 일정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특히 전자사전이 아니라 종이사전인 경우 조선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 들고 다녀야 하므로 지나치게 크면 안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조선사람들을 위한 중사전처럼 100 000개가 넘는 올림말을 다 올릴 수 없다.

이로부터 조선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사전의 올림말선정 문제는 모국어사용자용사전의 경우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사전의 모든 구성과 내용들이 편찬목적과 성격에 잘 부합되어야 하지만 올림말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충분하게 제시하는가 하는 문제도 사전의 쓸모와 의의를 결정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학습사전이라는 성격에 부합되면서도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올림말을 잘 선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학습사전가운데

서 소사전은 5 000개 정도의 올림말을, 중사전은 50 000~60 000개 정도의 올림말을 올려야 한다고 하였다.

소사전인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고있으나 중사전 올림말수에 대하여서는 경험적인 수자만 제시되어있을뿐 그 수를 확정할만 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말학습사전의 올림말수를 몇개로 선정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조선어학습사전의 올림말수를 선정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어휘의 점유율에 기초하여 소사전의 올림말수를 옳게 정하는것이다.

어휘의 점유율이란 일정한 어휘부류가 전체 언어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어떤 언어이든지 해당 언어안의 모든 어휘들이 똑같이 쓰이는것은 아니다. 즉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에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용회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어들과 아주 드물게만 쓰이는 단어들 그리고 사전에 올라있기는 하지만 전혀 쓰이지 않는 단어들도 있다. 뿐만아니라 사용회수가 높은 단어들은 그 수가 아주 제한적이면서도 언어사용의 많은 몫을 차지하고있다.

조선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학습용 소사전에는 마땅히 전체 언어사용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은 단어들을 설정하여 올려야 한다.

지난 시기 제2언어로서의 조선어교육에 대한 연구에서는 모두 1 750개의 단어를 기초어휘로 선정하면서 다섯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첫째로, 우리 말 동사, 형용사, 부사의 구조적특성과 그 조성법을 최대한으로 고

려하여 명사의 말뿌리에 《하다》를 붙이면 자립적인 동사, 형용사로 되는것들(실례로 《공부》+《하다》-《공부하다》)과 명사의 말뿌리에 《롭》, 《스럽》 등의 뒤붙이를 붙여 자립적인 형용사로 되는것들(실례로 《영예》+《롭》-《영예롭다》, 《걱정》+《스럽》-《걱정스럽다》)은 기초어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둘째로, 소리같은말은 사용회수가 높은 단어들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도 하나만을 기초어휘에 넣는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실례로 《배》라는 단어는 과일의 하나로서의 《배》, 사람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의 《배》, 물위에 떠다니는 운수수단으로서의 《배》, 곱절의 뜻으로 쓰이는 《배》 등 네가지가 다 비교적 사용회수가 높은 단어들이지만 기초어휘안에는 《배》라는 단어를 하나만 넣었다.

셋째로, 합친말은 《꽃봉오리》, 《목소리》, 《눈물》, 《책상》 등과 같이 사람들의 의식속에서 두개 단어가 합쳐서 된것이라는 개념이 매우 약한 대표적인 몇개 단

어들만을 기초어휘에 넣고 다른것들은 사용회수가 높은 경우에도 개별적말뿌리들을 따로따로 넣는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넷째로, 덧붙이가 붙어서 된 가지친말(실례: 노동자, 혁명화, 중공업, 충실성, ...) 가운데서 대표적인 몇개의 단어들만을 기초어휘에 넣었다.

다섯째로, 외래어들(실례: 아파트, 넥타이, 트랙토르)은 사용회수가 높아도 기초어휘에 넣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여기서 조선어기초어휘수가 모두 1 750개밖에 안되지만 그로부터 파생되는 어휘수들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외래어들까지 다 합치면 3 000개정도이상으로 볼어날것이라고 추측할수 있다.

《조선어빈도수사전》의 자료들을 리용하여 분석한데 의하면 5 000개 단어들의 점유률은 81~82%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5 000개의 단어만 알면 40 000개를 넘는 단어들로 구성된 글을 읽을수 있고 그중에서 81%이상을 리해할수 있을것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언어 어휘수	조선어 빈도수 사전	일본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
150	34.0%		48.0%			
300	42.6%	45.3%	59.7%			
500	49.4%	51.5%	67.1%			
1 000	59.2%	60.5%	76.5%	80.5%	83.5%	81.0%
1 500	65.2%		79.0%			
2 000	69.4%	70.0%		86.6%	89.4%	86.6%
3 000	75.2%	75.3%		90.0%	92.8%	89.5%
3 500	77.3%					
4 000	79.0%			92.2%	94.7%	91.3%
5 000	82.0%	81.7%		93.5%	96.0%	92.5%

또한 약 4 260만 《어절》의 코퍼스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어휘의 수가 462 095개였는데 그중 17 377개(3.8%)가 전체 언어자료의 95.7%였다.

우와 같은 분석결과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비교적 적은 수의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반면에 많은 단어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게 쓰인다는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제2언어교육으로서의 조선어교육에서는 일정하게 제한된 개수의 어휘부터 먼저 가르쳐주어야 하며 학습사전의 올림말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로부터 조선어학습사전에서는 어휘사용회수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사용회수가 높은 어휘들을 위주로 선정할수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초중급정도의 조선어학습사전에서는 5 000개~17 500개정도까지의 어휘를 선정하여 올려야 한다.

즉 초급정도의 외국인을 위한 조선어학습소사전에서는 5 000개정도의 올림말이면 충분하다고 할수 있다.

조선어학습사전의 올림말수를 선정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리해어휘, 사용어휘량에 기초하여 중사전의 올림말수를 옳바로 정하는것이다.

조선어를 배우는데서 고급한 수준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조선어학습용사전의 올림말수는 학습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단어량의 개수와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학습사전의 올림말수에 관한 몇몇 연구자료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사전의 경우 40 000~60 000개의 올림말을 선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수자들은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출발한 수자이다.

조선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사람들이 단어를 몇개나 알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짚어 말하기 힘들다.

여기서는 조선말을 배우는 목적을 다양한 사회생활현실을 조선말로 정확히 리해하고 알맞게 표현할줄 아는 능력을 소유하는것으로 설정하고 논의하기로 한다.

다양한 사회생활현실을 리해하고 표현할수 있을만큼 충분한 어휘소유량, 모든 언어생활을 조선말로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어휘소유량이란 조선사람들수준의 어휘소유량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을 위한 학습용중사전의 올림말은 일반적으로 조선사람이 소유한 어휘를 충분히 반영할수 있는 개수의 어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볼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것은 사람들이 모든 단어에 대하여 똑같은 지식을 소유하고있지 않다는것이다. 즉 어떤 단어는 입말생활이나 글말생활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단어는 보거나 들으면 그 뜻은 비슷이 알수 있으나 자기가 주동적으로 사용할수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이로부터 사람들이 소유한 어휘지식은 리해어휘와 사용어휘로 구성된다고 볼수 있다.

리해어휘란 문자로 보거나 음성으로 들었을 때 그 의미를 리해할수 있는 어휘이며 사용어휘란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사용할수 있는 어휘를 말한다.

학습용사전의 올림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선사람의 어휘소유량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두 측면을 정확히 고려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모국어어휘리해량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15살쯤이면 30 000~40 000정도의 단어를 리해할수 있으며 성인들의 리해어휘수도 대체로 40 000개정도이라고 볼수 있다.

소학교학생들의 리해어휘량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여보면 조선사람들의 모국어리해어휘량도 40 000~45 000개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것으로 추측

된다.

한편 언어습득에 관한 연구자료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리해어휘량과 사용어휘량의 비율을 대체로 2 : 1 정도로 보고있다. 이로부터 조선사람들의 사용어휘량은 20 000~22 500개로 예상할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17 500여개 어휘의 점유율을 참작한다면 이러한 수자들은 중요한 통계수자라고 할수 있다.

이로부터 학습용중사전에서는 20 000여개의 사용어휘에 20 000여개의 리해어휘를 더 보탠 최소 40 000여개의 단어들을 올림

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볼수 있다.

우에서 논의한 수자들의 타당성은 물론 학습용사전의 올림말이 어떤것이여야 하겠는가 하는 논의에 기초하여 실지로 구체적인 선정작업을 거친 다음 귀납적으로 얻어진 목록의 어휘수와 본 논문에서 제기한 올림말수를 비교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검증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학습사전 올림말의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더 잘 알수 있을것이다.